

# 민주당 對 安신당 ‘호남 혈투’ 막 올랐다

## 박지원 “텃밭 지키는 역할 하겠다” 윤장현 “민주당과 경쟁 승산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 구성 활동에 들어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경쟁구도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새정추추진위의 공동위원장 4명 중 2명이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면서 결국 이곳에서 양측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측은 9일 초반부터 밀리지 않으려는 듯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사무총장은 이날 추진위 공동위원장 인선에 대해 “호남·수도권 인사들로 구성해 여당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불관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 “양측이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로 구성돼 서운한 것은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냈다.

그는 전날에는 트위터에서 “새정추준비위 공동위원장단 보도를 보면 민주당에서 한 술밥을 먹던 동지나 주변 인사”라면서 “구멍가게로는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호남은 민주당의 소중한 텃밭”이라며 “전남도지사에게 출마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지만 호남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민주당

내 경선과 전체 지방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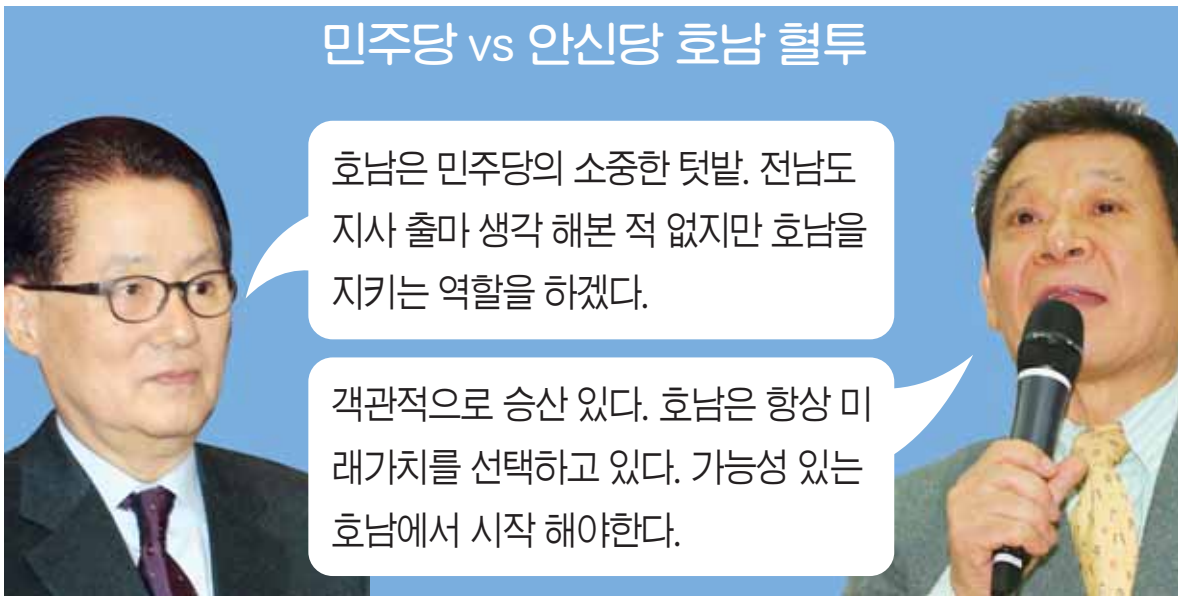
이 같은 반응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 지지율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호남지역 민주당원들 사이에는 상당한 위기가 감이 퍼져있으며 당 내부에서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당 해산에 대한 적극적인 후보, 경선 흥행몰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한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 혁명”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새정추추진위도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승산이 있을 것’이라며 ‘호남 공략’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질문에 “객관적으로 승산이 있다. 호남은 항상 미래가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수도권과 호남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에는 “일단 가늠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김홍석 공동위원장은 전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구멍가게’ 비판에 대해 “구멍가게가 될지, 앞으로 크게 한 국의 정치를 흔들어내고 새로운 판을



### 민주당 vs 안신당 호남 혈투

호남은 민주당의 소중한 텃밭. 전남도지사 출마 생각 해본 적 없지만 호남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객관적으로 승산 있다. 호남은 항상 미래가치를 선택하고 있다. 가능성 있는 호남에서 시작 해야한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에서 열린 새정추 추진위원회 회의의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짜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추추진위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감추지 않았다. 이계안 공동위원장은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야권분열 가능성을 우려

려한 데 대해 “군자는 제 뜻을 하고 소인은 남 뜻을 한다고 하는데, 군자가 못되면 최소한 소인은 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혁신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없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기자jkipark@kwangju.co.kr

새정추추진위 대변인인 금태섭 변호사도 PBC라디오에 나와 “변화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분열하지 말라는 것은 이래도 있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기자jkipark@kwangju.co.kr

# 지방의원들 움직인다

##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신당행’ 탈당 가시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 구성과 함께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신당’행을 위한 탈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광주 광역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정성 광주시의원이 10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내고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추’ 위원장을 맡은 윤장현 광주 전남비전 21 이사장과는 개인적인 인연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윤 이사장과 조선대 의과대학 선·후배 간인데다 함께 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오랫동안 광주에서 시민사회활동을 함께 해온 인연을 갖고 있다.

서 의원은 “호남에서 60년간 이어져 온 정통 정당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건전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정권을 창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인화 광주시의원도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

적인 탈당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례회가 끝나고 난 뒤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광주 북구의회 A의원도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일부 지방의원들의 민주당 탈당 사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중국 전남도의원도 지난 11월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으로 합류했다. 향후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이다.

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현재 ‘신당’행을 고려하고 있는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미 파악해 놓은 상태여서 탈당할 것을 예상했다”며 “나가겠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경우 ‘집안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민주당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기초공천폐지안 23일 확정

## 국가사무 40% 지방에 이양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은 9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정책과제 중 시급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와 관련한 사안을 먼저 결정해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린 ‘자치현장 토크쇼’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인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 중 기초선거 공천폐지 과제를 (선거일정을 감안) 먼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23일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 대통령에게 권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그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선거공천 폐지 관련 권고안을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시하더라도 (권고안대로 실현될지) 확실할 수는 없다”며 “단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재정 분권·사무 분권과 관련, “OECD 국가 수준을 감안해 현재 4만5000건의 국가 전체 사무 중 40%를 지방에 이양하는 게 목표”라며 “지방이 잘하는 일은 지방이, 중앙이 잘하는 일은 중앙이 할 수 있도록 사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재정도 쪼아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제1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부위원장은 “사무 분권 목표가 40%이고 현재 자치사무가 9천 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9000건을 더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새정추’ 첫 공식회의 “국민 이익 우선 합리적 개혁주의 지향”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추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는 9일 오후 첫 공식 전체회의를 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안 의원의 심크랭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안 의원은 ‘추진위원’ 자격으로 참석, 4명의 공동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새정추의 기본 운영 방향과 사업계획, 조직구성 등에 대해 의

견을 나눴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가 낡은 정치를 걷어내고 새 희망을 만드는 첫 출발”이라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고 국민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합리적 개혁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당의 정치적 지향점으로 합리적 개혁주의를 제시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선거가 임박해 당선만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사람만 오라고 외쳐야 한다”면서 “오늘은 힘든 가시밭길은 걸지만 역사의 평가에서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박호근 위원장은 “새 정치는 삶의 정치이고 국민을 걱정하지 않게 하는 정치”라면서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홍석 위원장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핵심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고민하고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장현 위원장은 “저희 국민과 함께 새정추추진위원회는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젠다는 크게 ‘실질적인 지방자치’라며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복원과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해소가 진짜 바라는 새정치”라고 주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b>윤기주하나투어</b> [신세계 이마트 1층]	<b>062)360-0166</b>
<b>세정투어여행사</b>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b>062)464-8000</b>
<b>모든나라여행사</b> [전남대정문]	<b>062)521-2100</b>
<b>보라여행사</b> [순천 엔씨백화점 2층]	<b>061)724-1688</b>

**무안출발 상품**

[CCPF50-MUB] <b>상해/주자강/장가계/월가계 5일</b> 1,499,000원 ~	[AAPP50-MU] <b>[상해경유]방콕/파타야 5일</b> 999,000원 ~
<b>출발일 12월 28일(토)</b>	<b>출발일 2014년 1월 4일, 25일</b> 2월 8일, 15일, 20일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공영이용료, 전생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청) ■관광블로그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낭만이 있는 겨울여행,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 무안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3박5일)

[AVPF01-ZA1] [하나패คเกจ] 앙코르왓 4일/5일 <b>599,000원 ~</b>	[AVPF01-ZA2] [하나패คเกจ] 앙코르왓 4일/5일 <b>799,000원 ~</b>
●일일비: 20석 한정(앙코르왓+5대륙특시) ●호텔: 캄보디아 호텔 또는 동급 투숙 ●항공: 6가지 특시 제공, 캄보디아 기널종 3종 세트 제공, 봉사비등 24시간 중영사 발급, 전선비까지	●일일비: 20석 한정(앙코르왓+5대륙특시) ●호텔: 앙코르 호텔 또는 동급 투숙 ●항공: 6가지 특시 제공, 캄보디아 기널종 3종 세트 제공, 봉사비등 24시간 중영사 발급, 전선비까지

**하나골프**  
부영CC / 포트트라CC / 앙코르 54홀  
캄보디아 씨엠립 4일/5일

[AVGF01-ZA] [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b>1,399,000원 ~</b>	[AVGF01-ZAV] [초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b>1,749,000원 ~</b>
●매주 수요일 / 토요일 ●에라 호텔 또는 센수리 호텔 투숙	●매주 수요일 / 토요일 ●앙코르 팰리스 호텔 또는 동급 호텔 투숙

**인천출발**

[EAJ308-KE] <b>이집트/이스라엘 8일</b> 2,690,000원 ~	[EAJ303-EY] <b>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0일</b> 2,890,000원 ~
<b>출발일 1월 08일(수)</b> ●특선: 기독교 성지순례 전문 가이드 및 인솔자 동행, 대한항공 [델타에어-러닝]항공 이용	<b>출발일 1월 06, 13, 20, 27, 2월 03, 10, 17, 24</b> ●특선: 기독교 성지순례 전문 가이드 및 인솔자 동행, 성지순례 TOUR MAP 제공
[EAJ304-KE] <b>이집트/요르단/이스라엘 10일</b> 3,190,000원 ~	[EAJ305-KE] <b>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투바이 10일</b> 3,290,000원 ~
<b>출발일 1월 01, 08, 15, 17, 22, 24, 27, 29, 2월 03, 05, 14, 17, 26</b> ●특선: 기독교 성지순례 전문 가이드 및 인솔자 동행, 일정 중 특시 포함(이스라엘 - 베드로 고기)	<b>출발일 1월 06, 13, 20, 24, 27, 2월 03, 10, 17, 24</b> ●특선: 기독교 성지순례 전문 가이드 및 인솔자 동행